

II. 世界 經濟 展望

- (성장) 98년 세계 경제는 4%내외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선진국과 체제 전환국들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교역 증가율도 97년과 비슷한 수준인 7%를 나타낼 전망이다
- (전망) 선진국 경기 회복이 두드러지며 개도국의 성장 정체가 우려됨
 - 미국에서는 저물가, 저실업, 고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며, 일본과 독일에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 증가세로 이어져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반면,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의 개도국에서는 그 동안의 고성장에서 성장 정체를 나타낼 전망이다
- (특징) 98년 세계 경제의 특징은 선진국 중심의 경제 성장, 지역주의 심화와 다자간 협상의 가속화, 금융 불안에 따른 실물 경제 제약 가능성 농후 등을 들 수 있음
- (시사점)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은 지역주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화와 현지화를 병행하는 glocalization 전략의 확대가 필요함
 - 다자간 투자 협정 협상과 관련, 투자 개방에 있어 국내 기업의 적응력을 감안해서 적대적 M&A 허용, 외국인 토지 소유 확대 등과 같은 국내 정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1. 개관 및 특징

■ 개관

98년에 성장세 지속 전망

○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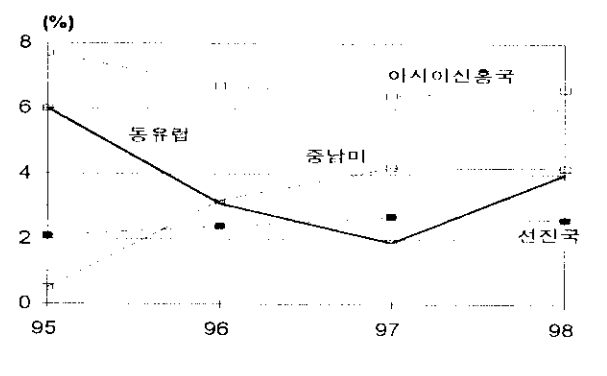
- 9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성장세는 98년에도 이어져 4%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임
- 98년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의 개도국은 그 동안의 고성장에서 성장 정체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98년에 7% 내외의
교역 증가

○ 교역

- 선진국 경기 상승과 체제전환국들의 본격적인 회복세 등에 힘입어 98년 세계 교역 증가율은 97년과 비슷한 7% 내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세계 주요 지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달러화 약세, 일본
금리 상승 등이 예
상되며 원유가는
안정 국면을 유지
할 전망이다

○ 국제 환율

- 미일간 무역 마찰 확대로 엔화 약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99년 1월 탄생 예정인 유러(Euro)화 강세 유지를 위한 마르크화의 강세가 예상되어 달러화는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금리

-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과 안정적 성장 지속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음
- 반면, 일본에서는 내수 회복과 무역 흑자 확대로 금리의 상승 가능성은 높음

○ 원자재

-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유 가격은 안정세 속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 특징

선진국 경기 상승
이 개도국 경기 상
승을 유도

○ 선진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계속 주도

- 선진국의 경기 상승은 이들 국가의 국내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개도국들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임
- 이는 개도국 경기 상승을 유도하는 연관 효과를 초래, 세계 경제의 동반 상승이 기대됨

지역주의의 확산과
다자간 협상이 가
속화될 전망

○ 지역주의 심화와 다자간 협상의 가속화

- EU, NAFTA, ASEAN, APEC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각지역 역내 무역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
- 한편 WTO 금융, 해운 서비스 협상이 진척되고 있고 「OECD 다자간투자협정(MAI)」¹⁾의 타결이 예상되는 바, 무역과 투자의 국제 규범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 즉 선진국들은 전세계적 경제규범을 만들면서도 지역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양면성을 노정하고 있음

금융 부문의 불안
이 경기 침체를 가
져올 수도 있음

○ 금융 불안의 실물 경제 제약 가능성

- 유럽통화통합(EMU) 발족 조건의 충족이 불투명해질 경우, 유럽지역 금융 시장의 교란이 예상되고, 이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의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동남아 통화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시장이 개방된 개도국에서의 투기성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짐. 이러한 금융 부문의 불안은 실물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련

1) 98년 타결 전망인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은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협정의 특징은 투자의 정의가 직접 투자 및 포괄적 외국인 자산 투자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실질적인 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라는 것임. 또한 투자분쟁절차의 강화를 통해 기업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속력이 매우 강한 협정임

국의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함

<정리: 98년 세계 경기 개관>

성장	-95년 이래의 성장세는 98년에도 계속되어 4%내외를 기록할 전망 -97년에는 미국과 영국이, 98년에는 일본과 독일이 가세할 전망
교역	-선진국 경기상승과 체제전환국들의 본격적 경기 회복세 등에 의해 97년 수준 유지 전망
환율	-미일간 무역 마찰 확대로 엔화 약세 반전 가능성이 높고, 99년 1월 탄생 예정인 유러화 강세 유지를 위한 마르크화의 강세가 예상되어 달러화는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설 전망
금리	-미국의 물가 안정과 안정 성장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반면, 내수 회복과 무역 흑자 확대로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전망
원자재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유 가격은 안정세 속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

2. 지역별 전망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중이나 98년부터 무역적자 문제 증폭 때문에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강화가 예상됨

■ 미국

- (꾸준한 성장세 유지) 미국은 저물가, 저실업률, 선진국 중 양호한 재정적자 수준, 달러 강세, 증시 활황 하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98년은 97년 3.5%에 비해 성장률은 2%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 증대와 낮은 수준의 실업률(5.1%~5.3%)로 고용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활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 (무역수지 약화와 통상마찰 확대) 對 일본 및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의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일 통상관계는 항공, 해운, 자동차 산업에서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WEFA	DRI	IMF	WEFA	DRI	IMF
실질GDP성장률	2.4	3.5	3.2	3.7	2.3	1.9	2.6
실업률	5.4	5.1	5.2	5.1	5.1	5.4	5.3
소비자물가상승률	2.9	2.6	2.6	2.4	2.8	2.7	2.8
경상수지	-160.0	-167	206.9	-	167	-232.6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10.

97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국면 진
 입하여 98년에는
 2% 이상의 성장
 예상

■ 일본

-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예상) 90년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강화하는 케인즈식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경기침체 계속
 - 97년 4월 소비세 증세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국면은 소비세 증세 과장이 해소되는 97년 하반기 이후 회복 국면으로 재진입하여, 98년에는 2%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임
- (수출 증가와 엔화 강세 예상)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내수 증가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일본기업은 높아진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수위주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엔화는 강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일본 기업들은 지난 장기불황에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아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

<일본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WEFA	DRI	IMF	WEFA	DRI	IMF
실질GDP성장률	3.5	2.0	1.4	1.1	3.2	2.6	2.1
실업률	3.3	3.3	-	3.4	3.2	-	3.2
소비자물가상승률	0.1	1.6	0.6	1.6	1.5	0.8	0.7
정상수지	69.3	73.4	91.3	-	93.9	101.3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10.

독일과 프랑스는 2.8%대의 본격적인 성장세 전망. 서유럽 전체로는 올해 수준의 회복 유지

■ 유럽

- (본격적인 성장세) 97년 1/4분기부터 수출 호조와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로 완만한 회복세가 시작되었는데, 98년에는 내수부문 회복도 예상되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임
 - 97년 독일 및 프랑스 경제는 달러화의 강세와 수출확대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와 재고투자가 증가하여 96년 1.4%의 성장에서 97년 2.2%내외의 성장률로 회복. 98년은 2.8%내외로 회복될 전망
- (실업과 재정 적자 감축 문제가 걸림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말비암아 11.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율이 97년에 이어 98년에도 유지될 것임
 - 99년 1월 유럽통화연합 출범을 위한 각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유럽 주요국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WEFA	DRI	IMF	WEFA	DRI	IMF
독일	실질GDP성장률	1.4	2.2	2.2	2.3	2.2	2.6	2.8
	실업률	10.3	11.2	11.4	11.3	11.0	11.6	11.2
	소비자물가상승률	1.5	1.6	2.1	1.9	1.6	2.3	2.3
	경상수지	17.7	-2.2	-11.6	-	8.6	3.9	-
프랑스	실질GDP성장률	1.3	2.2	2.2	2.2	2.7	2.8	2.8
	실업률	12.4	12.4	12.8	12.6	12.0	11.9	12.3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3	1.8	1.1	1.9	1.9	1.3
	경상수지	22.5	21.4	20.4	-	16.2	30.8	-
영국	실질GDP성장률	2.1	3.2	3.0	3.3	2.4	2.5	2.6
	실업률	7.5	5.8	6.0	5.8	5.3	5.5	5.0
	소비자물가상승률	2.9	2.9	2.8	2.6	3.3	3.9	2.7
	경상수지	1.7	-10.7	-2.2	-	-19.2	-6.8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10.

정치적 안정으로
 고도 성장 예상.
 단 수출 증가 둔화
 예상

■ 중국

- (소비와 투자 증가 예상) 홍콩 반환과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국내 소비와 투자의 확대가 예상된다
- 98년에는 97년 하반기 성장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수출증가율은 하락할 것이며 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임
-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높은 저축률, 꾸준한 개혁, 훈련된 노동력, 행정력 등임
-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경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임

- (외국인 투자 증가) 금년도 해외투자 유치액은 전년대
비 15% 증가한 450-4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98
년에도 이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자본주의 제도의 확산에 따라 파산법 시행지역이 확대
되고 기업 파산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對중국투자가
증가할 것임

<중국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WEFA	DRI	IMF	WEFA	DRI	IMF
실질GDP성장률	9.7	9.8	9.7	-	9.2	9.6	-
실업률		-	-	-	-	-	-
소비자불가상승률	8.4	5.6	9.0	-	6.4	8.9	-
경상수지	-3.4	2.5	-2.5	-	0.4	-6.2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10.

통화 위기의 후유
증으로 성장률 6%
내외로 침체 예상

■ 동남아

- (통화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 97년 통화 위기의 후유
증으로 인한 금융 긴축이 계속되어 98년까지 침체 국
면이 지속될 전망임
- 97년과 98년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은 6%내외를 지
속 전망
- 이 지역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20%이상 하락했으며 외
환보유고도 감소추세에 있음
- (경기 회복 지연) 경기 회복은 금융 긴축 조치가 완화
되고 수출이 회복되는 98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

- 그 동안 고도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최근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서 98년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함
- 그 동안 20%를 상회하던 평균수출 증가율이 수출가격 급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노동집약적 상품의 중국, 인도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바람에 97년에는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동남아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WEFA	DRI	IMF	WEFA	DRI	IMF
실질GDP성장률	6.7	6.4	6.4	-	6.6	6.7	-
실업률			-		-	-	
소비자불가상승률	6.0	-28.4	4.8	-		5.3	-
경상수지	-28.3		-19.1	-	-22.4	-21.5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10

98년 4%대의 지속 성장 예상. 단 경상수지 적자가 안정적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남미

- (경기 회복 가시화)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들은 경기침체를 벗어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성공하여 98년에는 4%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단 이들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설비투자의 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임

<중남미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DRI	WEFA	DRI	WEFA
멕시코	실질GDP 성장률	5.1	4.9	5.4	4.1	6.4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4	23.1	17.2	14.9	13.2
	경상수지	-1.4	-4.6	-6.1	-9.1	-10.7
아르헨티나	실질GDP 성장률	4.4	5.2	6.3	4.9	4.5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	1.9	0.9	3.9	1.8
	경상수지	-3.6	3.4	-6.7	-3.0	-10.3
브라질	실질GDP 성장률	2.9	4.0	3.5	4.4	3.8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5	8.6	7.0	10.8	7.2
	경상수지	-24.4	-27.9	-29	-30.2	29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러시아는 2.7% 안
 정 성장 전망. 기
 타 체제 전환국도
 4%대 성장 전망

■ 체제 전환국

- (안정 성장 진입) 러시아는 화폐 개혁과 안정화 정책의 성공으로 98년에는 성장률이 2.7%로 회복될 전망. 기타 체제 전환국들도 98년에는 4%대 안정 성장 전망
- 정치적 안정 여부, 재정 적자, 물가 상승 등이 이 지역의 안정적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임

<체제전환국 경제 전망>

(10억 달러, %)

		1996	1997		1998	
			DRI	WEFA	DRI	WEFA
러시아	실질GDP성장률	-6.0	0.9	0	3.3	2.0
	소비자물가상승률	53.0	18.0	15	-	12
	경상수지	7.5	17.0	12	-	14
폴란드	실질GDP성장률	6.0	5.3	5.9	5.1	5.5
	소비자물가상승률	20.0	20.0	16	15.6	13
	경상수지	-1.4	-1.4	-5.5	-	-5.7
체코	실질GDP성장률	4.0	4.8	1.6	4.5	5
	소비자물가상승률	8.8	8.8	8	-	7
	경상수지	-4.2	-4.2	-4.5	-	-3.8
헝가리	실질GDP성장률	1.0	5.5	2.7	5.4	3.5
	소비자물가상승률	24.0	24.0	18	-	15
	경상수지	-1.7	-1.7	-1.9	-	2.0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 8.
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7.

<정리: 98년 지역별 세계 경기 추세>

경기 추세	지역	주요 경기변동 요인
호조 지속	미국	- 소비 증대와 고용 안정의 지속 (불안요인: 경기호황에 따른 금리 소폭 상승 가능성, 對일본, 對중국 무역적자)
완만한 회복세	일본	- 97년 4월 이래의 소비세중세 과장의 해소 (불안요인: 엔화강세 예상에 따른 경기부진. 그러나 장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합리화로 수출경쟁력에 대한 단기적 충격은 작을 듯)
	중남미	- 적극적인 외자유치 (불안요인: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 추세)
본격적 회복 및 성장세	러시아	- 화폐 개혁과 안정화 정책의 성공
	서유럽	- 97년 1/4분기 이래의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대 - 98년 이후 예상되는 내수부문 회복
	중국	- 홍콩반환과 전당대회 개최 등의 정치적 안정 - 파산법 시행지역 확대에 의해 기업파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對중국투자 증가
침체	동남아	- 97년 통화위기로 인한 금융긴축의 지속

3. 시사점

지역주의 확산으로
현지화 및 우회 진
출이 활발

-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현지화 확대
 - NAFTA, EU의 지역주의 확산으로 기업의 현지화가 확대될 것임
 - 또한 신흥 공업국들이 선진국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멕시코 및 동구 유럽 등으로 우회 진출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97년 9월 룩셈부르크 EU재무장관회의에서 99년 1월 유로화 시행을 재차 확인
 - EU집행위원회는 97년 7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과 키프로스를 2000년까지 우선가입 대상국에 선정함
 - 미국은 무역적자 심화로 보호무역적 자세 내지 NAFTA 역내 무역 강화 예상
 -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 통합화와 지역화가 병합하는 glocalization 전략의 확대가 요구됨

다자간 통상 협상의
가속화로 국내
외 기업의 경쟁 격
화

- 다자간 협상 가속화에 따른 기업간 경쟁 심화
 - 다자간 통상 및 투자 협상의 가속화에 따른 각국의 시장 개방은 국내외에서 세계 초국적 기업(TNC)과 국내 기업(Local)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임
- 투자 개방과 관련하여 신중한 정책 선택이 요구됨
 -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과 관련, 정부는 국내 제도 준비를 추진하고 있음
 - 이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적대적 M&A 허용 문제임
 - 정부는 우호적 M&A 만을 허용하는 유보안을 제출하였으나, OECD 회원국들은 적대적 M&A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입장이 관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적대적 M&A 허용은 금융 시장의 경쟁력, 특히 M&A 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음
- 국내 기업의 적응력을 감안하여 향후 제도 개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